



06년 상반기 천연고무 가격 앙등과 배경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천연고무 가격은 올 4, 5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타이어 업계를 비롯한 천연고무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반기 천연고무 가격앙등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도쿄공산품거래소의 RSS#3호의 선물거래 가격이 5월말에 1kg당 300엔대로써 8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태국 산지가격 (RSS#3호의 offer 가격)도 280센트 전후를 기록하면서 천연고무 가격의 급격한 앙등은 타이어 및 고무업계의 생산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유례없는 천연고무 가격 앙등의 배경에는, 첫째, 아시아에서의 수요 증가를 들수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는 천연고무가격 앙등의 근본적 원인이며, 특히 중국은 05년 천연고무소비량이 183만톤으로 세계소비량 875만톤의 20.9%를 차지하는 최대소비국으로써 중국의 소비량 증가가 천연고무 가격앙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밖에 여타 BRICs국가들의 천연고무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인도는 천연고무를 자급자족하고 있고, 러시아는 고무소비량의 90%가 합성고무 (05년 94.9%)이며, 브라질의 천연고무 소비량은 05년에 전년대비 10.2% 증가율로 아직 소비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

둘째, Tapping할 수 있는 고무나무가 감소 했다는 것이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천연고무가격이 하락하여 산지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무나무 벌채가 이어지고 팜오일, 과일나무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천연고무 나무의 식재의욕이 회복된 것은 03년 이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무나무가 성장하여 tapping가능한 시간은 5~30년, 고무채취량이 많은 기간

은 10~20년이므로, 현재 tapping할 수 있는 나무가 적어 수요증가에 대해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고무나무 재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세계2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고무나무 재배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아 천연고무 공급증가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요인은 기후 불순으로, 1차산품은 많은 경우 기후 불순이 감산요인이 되며, 천연고무의 경우는 기후불순이 감산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특히, 세계최대 산지인 태국에서는 최근 호우가 계속되는 등 기후불순에 의한 고무나무 tapping 장애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넷째, 투기적 요소이다. 천연고무는 금, 원유 등에 비해 시장규모가 1/100이하로써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례가 없을 정도로 가격 급등락을 보이는 것은 기후불순 등에 의한 수급불안 감을 이용한 투기가 표면에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도쿄공산품거래소의 RSS3호 선물가격은 06.2.6일에 1kg당 274.9엔까지 급등하여 84년이래 22년만에 높은 가격대에 도달하였으나, 당일 저녁에는 급락하여 반전하는 등 며칠간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이외 기타 배경으로는, 천연고무 생산 분야에서의 저렴한 노임으로 인해 숙련인력이 부족하여 생산증가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천연고무의 원료가격 USS (Unsmoked Sheet)는 태국에서 1kg당 100바트를 초과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천연고무 가공공장의 1일 임금은 천연고무 2kg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